

PA對策

고아레벤의 BLG(관리회사)에서는 고아레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유치원 건물에 인포메이션 하우스를 상설하여 週 4 회 개방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여론지도층(의사, 의원, 목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보내고 있다.

고아레벤부근에서 예상하지 못한 농작물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은 법률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을 확신하고 있다.

고아레벤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갯도굴 착공사중 사망사고가 있어서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있는 중이나, 곧 재개될 예정이다.

西獨에서의 輿論調查 結果

서독원자력산업회의(DATF)는 1988년 7월 트랜스뉴클리어사건후 서독에서의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여론조사는 DATF가 아렌스바하여론조사 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트랜스뉴클리어社의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서독국민의 기본적인 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 사건에 의해서 원자력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국민 전체의 불과 6%에 지나지 않으며, 38%는 그때까지의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며, 또 45%는 사건이 자신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 일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 태도변화의 주관적 평가(대상 : 국민전체)
(질문 1) 이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國民全體 (%)	原子力의 利用 (%)		
		長期	서서히 增大	急速하게 增大
1. 根本적으로 바뀌었다	6	3	6	6
2. 態度가 강해졌다	38	4	26	63
3.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45	79	58	23
4.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	11	14	8	8

트랜스뉴클리어사건은 매우 큰 주목을 받아 국민의 89%가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조사에 착수한 계기가 된 것이 트랜스뉴클리어社 수뇌의 자진신고라는 것을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안 것은 불과 27%에 불과하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회사의 관리직, 고급관료 및 노동조합원은 일반국민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이 계층 사람들은 약 40%가 자진신고를 알고 있었다.

트랜스뉴클리어사건에 의해서 원자력관계의 과학적·기술적 문제의 해결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극히 조금 밖에 손상받지 않았다. 오늘날 서독 국민의 30%는 대단히 큰 신뢰를 하고 있으나, 38%는 어느 정도의 신뢰 밖에 갖고 있지 않으며, 22%는 대체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

(表 2) 자진신고에 관한 지식(대상 : 국민전체)
(질문) 이 사건은 트랜스뉴클리어社 수뇌의 자진신고에 의해서 알려졌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國民全體 (%)	勞動組合員 (%)	管理職 / 官僚 (%)	事件에 대한 關心 (%)		
				높다	중간 정도	낮다
1. 알고 있었다	27	41	42	39	30	16
2. 처음 들었다	64	58	50	61	70	84
3. 이 사건에 대해 듣지 못했다	9	1	8	*	*	*

다. 이에 비해 1987년에는 국민의 35%가 미해결 문제의 해결가능성에 큰, 또는 매우 큰 신뢰감을 갖고 있었고, 34%는 어느 정도의 신뢰감 밖에 갖고 있지 않았으며,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과학기술적 진보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불과 17%에 불과했었다.

폐기물관리의 문제가 미해결이라고 하는 국민의 견해는 1987년과 1988년이 거의 비슷하였다. 즉, 1987년 봄의 조사에서는 77%가 방사성

(表 3) 해결능력의 신뢰도 (대상: 16세 이상 국민)

(질문) 원자력관계의 과학적·기술적문제는 해결가능하다는데 대한 당신의 신뢰도는.

	1984年 6月 (%)	1986年 7月 (%)	1987年 3月 (%)	1987年 8月 (%)	1988年 2月 (%)
1. 대단히 큰 신뢰 / 비교적 큰 신뢰	42	31	35	34	30
2. 어느 정도의 신뢰	37	36	34	38	38
3.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10	22	17	21	22
4. 알 수 없다	11	11	14	7	10

(表 4) 위험성의 평가와 정치적 입장 (대상: 국민 전체)

(질문) 방사성폐기물에 의해 주민에 대한 위험성은.

	國民全體 (%)	支 持 政 黨			
		CDU/CSU	SPD	F.D.P.	녹색당
1. 危險이 있었다	53	38	64	55	81
2. 危險은 없었다	17	26	9	18	3
3. 모르겠다	21	26	18	20	11
4. 이 사건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9	10	9	7	5

폐기물을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83%였다.

위험성의 평가는 유일한 요인에 의해, 즉 정치 경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기독교민주당(CDU) / 기독교사회동맹(CSU) 지지자의 38%

(表 5) 연령별 원자력에 대한 입장 (대상: 16세 이상 국민)

(질문) 원자력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나 견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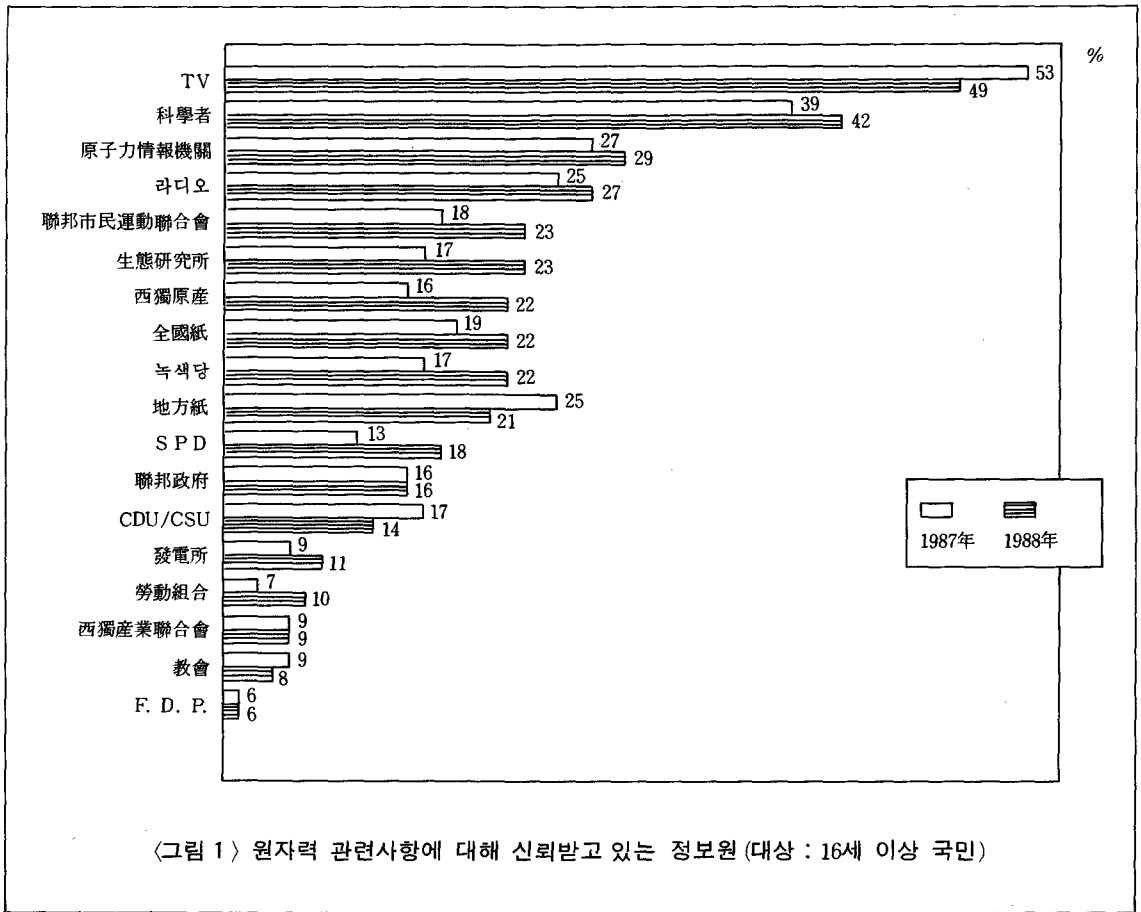
	國民全體 (%)	年 齡 群 (%)			
		16-29歲	30-44歲	45-59歲	60歲以上
1. 원자력은 장래에도 장기간 이용해야 한다	17	12	18	20	16
2.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원자력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34	28	34	38	37
3. 되도록 빨리 4~5년내에 원자력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31	36	33	31	24
4. 즉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12	19	11	8	11
5. 알 수 없다	6	5	4	3	12

가 주민에 대한 위험성은 방사성폐기물의 수송에서 시작된다는 의견인데 반해, 자유민주당(FDP) 지지자의 55%, 그리고 사회민주당(SPD) 지지자의 64%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녹색당의 지지자는 81%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表 6) 사건후도 사건전과 같은 정도의 낮은 정보수준 (대상: 16세 이상 국민)

(질문) 서독 국내에서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운전되고 있는가. 운전되고 있다면 몇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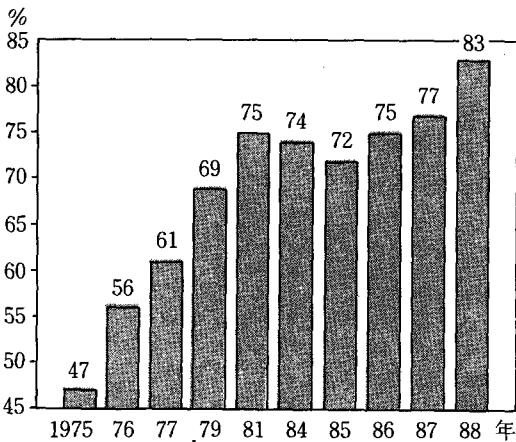
	1984年 (%)	1987年 (%)	1988年 (%)
1. 原子力發電所가 現在 運轉되고 있다	92	96	95
5基未滿	22	14	17
5-10基	33	33	31
11-15基	13	20	15
16-20基	5	11	9
21-30基	1	3	4
30基以上	1	1	2
모르겠다	17	14	17
2. 原子力發電所가 現在 運轉되고 있지 않다	8	4	5



〈그림 1〉 원자력 관련사항에 대해 신뢰받고 있는 정보원 (대상 : 16세 이상 국민)

〈그림 2〉 원자력에 대한 찬반 (대상 : 16세 이상 국민)

(질문) 원자력발전소에는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위험이 수반된다.



트랜스뉴클리어사건후 원자력반대의 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틀림없으나, 국민 전체의 34%는 원자력의 장기이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또 17%는 원자력을 제한없이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원자력에 관한 국민의 지식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번의 조사(1987년 8월)에서는 질문을 받은 사람의 4%가 서독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운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5%가 그와 같이 믿고 있었다. 현시점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基數를 거의 맞게 대답한 사람은 불과 4%에 불과한데 반해, 17%는 이 기수를 5기 이하라고 대답했고, 31%는 5기에서 10기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2기의 실험용 원자로를 포함하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서독에서 운전중이다.

원자력에 대한 모든 정보원에 관한 조사에서 제1위를 차지한 것은 TV이다. 물론 TV는 최근 수개월 사이에 원자력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을 다소 잃었고, 이를 대신해 과학전문가가

신뢰도를 높였다. 과학자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39%에서 42%로 증가했으며, 1987년에는 국민의 53%가 원자력에 관한 TV방송을 신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요즘은 49%로 떨어졌다.

特 輯 世界各國의 原子力PA와 輿論動向

스웨덴

스웨덴의 原子力PA現況

- 發電所에서도 弘報紙 發行 -

原子力發電設備容量 :	1,005.9萬kW
運轉基數 :	12基
總發電電力量에서 占하는 比率 :	45.4%

國民投票

1979년 3월 美國 TMI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해서 스웨덴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정책 그 자체를 정치수준에서 통일할 수 없게 되어 1980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받아 스웨덴의회는 1981년에 제정한 에너지법에서 「원전은 운전중, 건설중인 12기로 한정하고, 2010년까지 원자력을 全廢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1988년 6월 의회에서 「1995년에 1기, 1996년에 1기 폐지할 것」을 결정하여 구체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의 검토에 들어갔다.

정당에는 보수당(온건당), 자유당, 사회민주당, 중앙당(농민당), 환경당(녹색당), 공산당 등이 있으며, 1976년까지 44년간은 노조를 모체로 하는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다. 1970년대의 한시기에 보수당, 자유당 및 중앙당(농민당)의 3개당에 의한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1976-1978년) 확고한 에너지정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스웨덴의 원전폐지정책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만 사민당이 중앙당(농민당)과의 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1970년대 후반 동국 고유의 특이한 정치상황을 배경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경제적 또는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당시의 반대는 원전 반대가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미확정에 대한 반대였으며, 1979년 미국의 TMI사고로 인해 집권당인 사민당 내부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당내 분열의 위기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부득이 1980년의 국민투표에 이르렀다.

원자력 개발에 대한 당론은 집권당인 사민당이 중립적(소극적 반대), 보수당이 원자력 추진, 자유당이 중립적(소극적 반대), 중앙당이 원자력 반대, 환경당은 농민당인 중앙당에서 분리독립한 것으로서 반대, 공산당도 반대였다.

現 況

1988년 9월 18일 실시한 총선거의 쟁점은 원자력이 아니라 환경문제였다. 원자력은 쟁점을 선취한 여당이 6월 의회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으나, 환경중시의 세태를 인식하여 환경당(녹색